

가해

부활 제4주일

기초 자료

양들의 문이며 목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성소 주일

✓ 성소(聖召): 하느님의 부르심

=> 성소 주일은 여러 성소 가운데 특별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를 위해 기도하며

활동으로 그들에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사도 2,38)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찢어 죽인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도록 부르신다.

=> 이 부르심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

성소(聖召)란?

✓ 교회: 에클레시아(=불러 나온 이들의 모임)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불러 내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서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고유한 직분과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하느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כן,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1베드 2,20-21)

부르심의 길은 모욕을 당하는 길,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

=> 예수님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

영혼의 목자이며 보호자이신 분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시편 23편 - 오늘 화답송)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1베드 2,25)

=>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행복한 이들!

양들의 문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 10,7)

=> 주님은 목자임과 동시에 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양들의 참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라는 양 우리로 이끄는 이들이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요한 10,3)

=>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의 목소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닮은 사람이다.

나는 과연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수확할 밤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성소 주일은 우리를 이끌어 줄 참된 목자를 보내어 달라고 청하는 날,
이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착한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날이다.

성소 주일인 오늘,
주님의 새로운 일꾼이 태어나기를,
또한 성소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성소를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